

# 自營業에 從事하는 既婚女性의 出産行爲에 關한 研究

金 漢 坤  
(嶺南大學校)

(目 次)

I. 序論	IV. 調査結果
II. 文獻研究	V. 結論
III. 資料와 調査方法	

## I. 序 論

1960年代 初半에 일련의 5個年 經濟開發計劃과 家族計劃事業이 도입된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韓國에서 관찰된 出産力의 減少現象은 매우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에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이 6.0이던 것이 1985년에는 2.1명으로 減少하였다(이흥탁 1987: 213). 이와같은 급격한 出産力의 減少現象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經濟開發計劃과 政府次元의 꾸준한 家族計劃事業의 결과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Kim, 1985).

先進諸社會의 연구결과와 韓國社會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社會經濟發展과 家族計劃事業이 독립적으로 出産力의 減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社會經濟發展과 家族計劃事業이 동시에 韓國에 있어서의 出産力의 減少에 寄與하였음을 알 수 있다(Kim, 1985).

韓國에 있어서의 현저한 出産率 減少現象과 더불어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한 原因糾明을 위한 많은 研究들이 學問的 目的과 政策的인 次元에서 많이 수행되어 왔다. 본 調査研究는 기혼여성들의 출산행위에 관한 微視的分析의 일환으로서 經濟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 가운데서도 소규모의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을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다.

韓國社會에서는 文化와 傳統的 慣習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女性들, 특히 結婚한 여성이 家庭外의 經濟活動에 종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西歐文化의 급속한 도래와 産業化로 인한 社會構造의 變化와 함께 여성의 家庭外 經濟活動 參與에 관한 社會的 價値觀에 있어서도 상당한 變化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상당수의 未婚女性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야에서 經濟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女性들도 일단 結婚을 하게 되면 他意 혹은 自意에 의해서 專門職種에 종사하는 女性들을 제외하고는 職場을 떠나 家事일에 종실하는 것이 일반적인 慣例이다.

이와같은 現象과 관련하여 既婚女性들 가운데서 經濟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教師, 看護員처럼 資格證을 요구하는 직종과 같은 專門職에 종사하는 既婚女性과, 둘째는 주로 중간이하의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로서 그들의 經濟活動 參與가 家計의 경제적인 측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調査目的은 두번째 부류에 속하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들이 직접 소규모의 商業에 종사하고 있거나 부부가 같이 經濟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出産行爲와 관계되는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고 그들의 出産行爲에 영

향을 주는 決定因子들을 규명하고자 하며, 나아가서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의 出産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 II. 文獻研究

經濟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出産行爲에 관한 연구들은 先進社會와 後進社會를 막론하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經濟活動參與과 出産力의 關係에 관한 研究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因果關係가 상반되게끔 연구되어온 것도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sup>1)</sup> 그러나 Stokes와 Hirsch(1980)에 의하면 教育成就度, 結婚期間 등과 같은 社會的 要因들이 女性들의 勞動力參與과 出産力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決定因子들이며, 그와 같은 社會 經濟的 要因들이 통제된 후에는 女性들의 勞動力參與가 女性들의 出産行爲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 女性이 가진 子女의 數가 그 女性의 經濟活動參與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라도, 女性의 經濟活動參與 그 자체가 그러한 女性의 出産行爲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히 논의된 變數들과 관련하여 女性들의 出産行爲에 영향을 주는 變數들에 관한 文獻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몇몇 社會學者들에 따르면 所得과 出産力 사이에는 直接의 關係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所得과 出産力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假設은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awthorne 1970). 한편 Easterlin(1969)에 의하면 出産力에 관한 所得의 영향력은 그와 같은 所得을 처리하는 個個人的 嗜好(tastes), 選好度(preferences), 혹은 規範(norms)의 效果로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Easterlin에 의하면 所得의 增大는 두가지 通路(Channel)를 통해서 出産行爲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다음 世代에게 더 많은 資源(Resources)을 제공할 수 있으며

로 出産力을 증가시키는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物質的 財貨에 대한 相對的 慾望을 증가시킴으로써 出産力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지워 볼때 1980년대 후반의 韓國社會는 후자의 경우에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所得이 증대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 당시까지 資源의 缺乏 때문에 出産力을 억제해 오던 현상이 所得增大와 더불어 出産力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그러한 時期가 어느정도 지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時期에 도달하면 出産力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先進社會나 後進社會를 막론하고 教育水準과 出産力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反比例의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ited Nations 1973). 왜냐하면 女性들의 향상된 教育水準은 흔히 女性들의 전통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家庭主婦 혹은 子女出産과 같은 일에 관한 態度를 전환시키는 데에 중요한 貢獻을 하는 요소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韓國社會에 있어서도 教育水準과 出産力 사이의 反比例 關係가 여러 경험적인 調查 研究 結果 밝혀진 바 있다(Hong, 1978: 권태환 외, 1988: 조리재, 1981).

Freedman(1979)에 의하면 效果的인 通信手段 혹은 Mass Media의 발달은 出産力의 減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효과적인 Mass Media의 발달은 소규모 家族을 선호하는 쪽으로의 새로운 생각과 열망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 國家에 있어서 社會經濟 狀態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國民의 健康狀態가 빈번히 이용되며, 그와 같은 國民의 健康狀態는 흔히 死亡率로 가늠되어 진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지워 볼때 많은 先驗 研究들은 幼兒死亡率이 出産率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家族規模에 대한 변화된 態도와 전반적인 出産力의 감소는 幼兒 및 兒童死亡率의 감소에 기인된다(권태환 외 1976, 조리재 외 1977). 그러나 World Fertility Survey 結果에 의하면 個人的 水準에 있어서

註 1) Waite와 Stolzenberg(1976)의 研究結果는 女性의 經濟活動參與가 女性의 出産力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Cramer(1980)는 단기간의 경우에는 出産力이 女性의 勞動力參與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逆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의 兒童死亡率의 증가는 높은 出産力을 야기시키는 데 그 이유로는 첫째, 幼兒가 사망하게 되면 授乳가 단축되므로써 排卵 할 수 있는 기능을 초기에 환원시켜 주며, 둘째는 父母들이 사망한 子女를 出産을 통해서 대체 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學者들에 의하면 幼兒死亡率이 매우 낮은수준에 다다른 현재에 있어서 死亡率이 더 이상 出産率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조리재외, 1982). 또한, 박재빈 등(1979)에 의하면 幼兒死亡率이 Micro-level에서는 관심이 될지 모르지만 Macro-level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으리라고 주장한다.

人工流産이 1960년 이래로 出産力의 변화에 두가지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願치않는 出産을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둘째는 다른 避妊方法이 실패했을 경우 産兒制限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점이다. 그 결과 人工流産은 出産力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리재외 1982).

Kingsley Davis 와 Judith Blake (1956)에 의하면 出産力은 中間媒體를 통해서 社會的, 文化的, 環境的 要因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中間媒體들을 Intermediate變數라 하여 11個의 變數를 제시하고 있다. 즉 女性의 出産行爲에 社會的, 文化的, 環境的 要因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出産行爲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媒介變數로 지칭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매개변수들 가운데서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初婚年齡, 結婚總期間, 避妊期間, 그리고 避妊道具에 드는 費用등을 중심으로 出産行爲와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初婚年齡이 낮을수록 避妊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므로 出産率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總結婚期間이 길수록 또한 出産의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避妊期間은 産兒制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産兒制限 期間이 길수록 出産力이 낮아질 것이며, 避妊에 쓰는 費用이 많다는 것은 産兒制限을 실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出産率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Bongaarts 1979).

World Fertility Survey(1982) 報告에 의하면 初婚年齡이 낮고 結婚期間이 길수록 出産力이 높으며 또한 효과적인 避妊期間이 길수록 出産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資料와 調査方法

#### 1. 資料

本 研究의 資料蒐集을 위한 標本의 母集團은 大邱市內에 소재하는 常設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이며, 20個의 크고 작은 常設市場에서 600名의 標本을 추출하여 1987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 까지 2주일에 걸쳐 24名의 面談者들에 의해서 設問紙를 통한 직접 面談에 의해 실시 되었다. 面談에 응답해준 對象者는 430名이었으며, 그 중에서 調査資料로서의 信憑性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15名의 事例가 제외된 415名이 본 研究를 위한 最終資料로 이용되었다.

#### 2. 調査方法

##### 1) 假設

앞에서 언급된 文獻研究를 바탕으로 본 調査研究를 위한 假設을 세워보면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社會經濟發展 程度가 높을수록 出産力이 낮을 것이며, 可妊期間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一般假設들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假設 1 : 家族所得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假設 2 :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假設 3 : 매스 미디어를 접하는 時間이 길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假設 4 : 幼·兒童 死亡率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다.

假設 5 : 人工流産率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假設 6 : 初婚年齡이 낮을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다.

假設 7 : 結婚期間이 길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

이다.

假設 8 : 避妊期間이 길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假設 9 : 避妊費用의 支出이 많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媒介變數들의 出産力에 대한 영향력이 社會經濟的 變數들의 出産力에 대한 영향력보다 높을 것이다.

## 2) 操作化

(1) 從屬變數 :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에게 조사당시까지 태어난 子女數

(2) 獨立變數 : 家族의 所得은 家族의 月平均所得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스미디어는 被面談者가 新聞과 雜誌를 읽는데 보내는 하루 平均時間과 T·V를 시청하는데 보내는 하루 平均時間으로 측정되었다. 幼·兒童死亡率은 既婚女性들의 總出生兒 가운데서 조사당시까지 死亡한 子女의 數로 나타났으며, 人工流産은 人工流産을 실시한 回數로 측정되었다. 初婚年齡은 被面談者가 처음 結婚했을 당시의 나이를 의미하며, 結婚期間은 初婚 이후 結婚生活을 한 기간을 個月數로 나타냈다. 避妊期間은 조사대상 既婚女性이 조사당시까지 避妊을 한 總期間을 의미하며, 避妊道具 購入에 드는 費用은 一年平均費用을 '원'으로 나타냈다.

(3) 統制變數 : 본 調查研究의 分析方法의 하나인 回歸分析 模型에서 被面談者들의 年齡이 統制變數로 도입되었다. 왜냐하면 年齡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한 각 獨立變數와 從屬變數 사이의 순수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 3) 統計處理

調査對象者들에 관한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技術的 統計方法이 이용되었으며, 假設의 檢證을 위해서는 回歸分析 方法이 도입되었다. 本 調査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10個의 獨立變數와 1個의 統制變數를 從屬變數인 出産率에 回歸하는 분석과, 社會經濟的 變數만을 獨立變數들로 한 回歸模型과 媒介變數만을 獨立變數로 넣은 回歸分析을 각각 試圖하였다.

## IV. 調查結果

### 1. 調查對象者들의 一般的 特性

本 調查研究의 직접 面談에 응답한 對象者들의 平均年齡은 37歲로서 최소 20歲에서 최고 연령이 50歲인 既婚女性들이며, 그들의 平均教育年限은 約 10年으로 中卒 정도의 學力을 보이고 있다. 家族의 月平均 所得은 48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應答者들의 20歲 이전의 主成長地로는 大都市에서 성장한 경우가 45%, 面所在地 이하가 26%, 그리고 中小都市와 邑單位가 각각 16%와 13%의 順이었다. 또한 조사당시까지 出産한 平均子女數는 2.4名으로 나타났다.

調査對象者들의 平均 初婚年齡은 23.6歲이며, 配偶者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約 96%로서 死別, 離婚, 別居 狀態에 있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 그들이 經濟活動에 종사한 平均期間은 約 7年 정도이며, 夫婦가 함께 自營業에 종사하는 정도는 전체 應答者들의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應答者들의 92.3%가 어떤형태이든 간에 避妊에 관한 知識을 알고 있다고 答한 반면, 7.7%는 避妊에 관한 知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應答者들이 産兒制限을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避妊方法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方法은 여성의 卵管手術로서 應答者들의 33.5%를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 月經週期法(18%), 먹는 避妊藥(15%), 남성의 精管手術(14%), 콘돔(9.4%), 그리고 자궁내장치(9.1%)의 順이다. 結婚

後 첫 妊娠을 하기 前까지 避妊을 실시한 女性은 응답자들의 10%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의 32%가 産兒制限을 위한 方편의 하나로 人工流産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贊成한다고 대답한 반면, 52%는 反對意思, 그리고 나머지 16%는 贊成도 反對도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調査對象者들의 約42%가 한번 이상의 人工流産 經驗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理想的인 子女數는 2.2名으로 아들 1.2名, 딸 1.0名이며, 실제로 갖고자 하는 子女數는 아들 1.3名, 딸 1.1名으로 2.4名이었다.

## 2. 假設檢證

調査對象者들의 社會經濟的 變數와 媒介變數를 原因變數로, 그리고 出産率을 從屬變數로 실시한 回歸分析 結果를 바탕으로 假設檢證을 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假設 1: 家族所得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表 1의 回歸分析 結果를 바탕으로 假設 1을 검증해 보면 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平均所得과 出産率과는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假設 1은 본 調査結果檢證되지 않았다.

假設 2: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表 1의 回歸分析 結果는 大邱市內에 소재하는 常設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教育水準과 出産率과의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假設 2는 본 調査研究에서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다.

假設 3: 매스 미디어를 接하는 時間이 길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表 1의 回歸分析表에서 살펴보면,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이 新聞 및 雜誌를 읽는데 보내는 하루 平均時間과 出産率과도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關係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TV 視廳에 소비하는 하루 平均 TV 視廳時間과 出産率과의 사이에도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大邱市內의 常設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出産率에 매스 미디어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假設 3은 본 研究調査에서 檢證되지 않았다.

假設 4: 幼·兒童 死亡率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다.

表 1의 回歸分析 結果에서 幼兒 및 兒童 死亡率과 出産率과의 關係를 살펴 보면 回歸分析의 非標準化와 計數(B)가 0.3184로서 두 變數사이의 상당한 정도의 定比例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幼·兒童 死亡率이 높아지면 子女의 代替心理로 인한 出産率이 높아진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假設 4는 본 조사결과 檢證이 되었다.

假設 5: 人工流産率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다.

表 1의 回歸分析 結果에서 두 變數사이의 關係를 回歸分析의 非標準化計數로 살펴보면 -0.0643으로서 두 변수 사이에는 비록 약하긴 하지만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反比例의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人工流産率이 높을수록 出産率은 낮을 것이라는 假設 5는 본 조사결과 支持를 받았다.

假設 6: 初婚年齡이 낮을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다.

表 1의 回歸分析에서 두 변수사이의 關係를 非標準化計數로 살펴 보면 -0.0533으로 두 변수사이에는 약하긴 하지만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反比例의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初婚年齡이 낮을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라는 假設 6은 檢證되었다.

假設 7: 結婚期間이 길수록 出産率은 높을 것이다.

表1에서 살펴보면 結婚期間과 出産間에는 0.0020 정도의 非標準化 回歸計數를 보여주고 있다. 즉, 結婚期間과 出産率과는 미미하긴 하지만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假設7은 支持를 받는다.

假設8: 避妊期間이 길수록 出産率は 낮을 것이다.

表1의 回歸分析 結果로서 두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避妊期間과 出産率과는 -0.0042(非標準化 回歸計數) 정도의 아주 미미한 反比例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假設8은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본 조사결과 檢證되었다.

假設9: 避妊費用의 支出이 많을수록 出産率は 낮을 것이다.

表1에서 보는 것처럼 두 변수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결과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의 경우 避妊을 하는데 지출하는 費用과 出産率과는 有意味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假設9는 檢證되지 않았다.

위의 假設檢證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論議해 보면, 假設1, 2, 3, 9는 본 調査結果 支持를 받지 못한 반면에, 假設4, 5, 6, 7, 8은 支持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로 미루어 볼 때 大邱市內의 常設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出産行爲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要因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一般 既婚女性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社會的, 經濟的 變數들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調査 對象의 경우에 있어서 家族의 月平均所得, 教育水準, mass media를 접하는데 보내는 平均時間, 避妊道具 購入에 드는 費用 등은 응답자들의 出産行爲를 결정하는데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常設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는 調査 對象자들의 특수한 職業的 狀

況과 無關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社會的 經濟的으로 유사한 여건에 처해있는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의 出産行爲에 있어서는 社會的, 經濟的 變因들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調査 對象자들의 避妊期間과 出産率 사이에 아주 미미한 反比例 관계가 나타나는 理由로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全體 避妊期間을 조사의 편의상 個月數로 질문하여 얻었으므로 응답자들의 記憶象의 錯誤 등에 기인 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出産行爲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媒介變數와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幼兒 및 兒童의 死亡率, 結婚期間과 出産率과는 定比例의 관계가 있으며, 人工流産率, 初婚年齡과는 反比例의 관계가 있음이 본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Blake와 Davis(1956) Bongaarts(1982) 등에 의해서 先進社會에서 밝혀진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假設 檢證의 結果를 바탕으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女性들의 出産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決定因子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模型(Model)을 밝혀내기 위해서 F-test를 이용한 回歸等式들 사이에 있어서 R<sup>2</sup>값 差異들의 有意性 檢證을 시도하였다. F-test를 위해 쓰여진 公式은 아래와 같다.

$$F_{K_2-K_1, N-K_2-K_1} = \frac{R_2^2 - R_1^2 / K_2 - K_1}{1 - R_2^2 / N - K_2 - 1}$$

R<sub>2</sub><sup>2</sup>: 큰 回歸分析 等式에서 說明되어지는 變量

R<sub>1</sub><sup>2</sup>: 작은 回歸分析 等式에서 說明되어지는 變量

K<sub>1</sub>: 작은 回歸分析 等式的 獨立變數 數

K<sub>2</sub>: 큰 回歸分析 等式的 獨立變數 數

N: 事例 數

假設 檢證을 위한 表1의 回歸分析 結果로 미루어 보아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의 出産率에 有意味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變數들은 社會經濟的 要因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社會經濟的 變數 및 媒介變數를 모두 포함한 원래의 큰 回歸等式과 그러한 回歸等式에서 社會經濟的 變因들을 제외한 媒介變數들로 이루어진

表 1. 社會·經濟的 變數와 媒介變數와 出産率에 대한 回歸分析

變 數	B	$\beta$
年 齡	-0.0901*** (0.0099)	0.5515
月平均家族所得	-0.0007 (0.0010)	-0.0243
教育水準	-0.0151 (0.0175)	-0.0438
新聞購讀時間	-0.0010 (0.0009)	-0.0503
TV視聽時間	-0.0012 (0.0006)	-0.0684
初婚年齡	-0.0533** (0.0188)	-0.1283
幼·兒童 死亡率	0.3184** (0.1190)	-0.1097
結婚期間	0.0020* (0.0009)	0.1148
避妊費用	-0.0007 (0.0006)	-0.0481
避妊期間	-0.0042* (0.0023)	-0.0847
人工流産	-0.0643* (0.0312)	-0.0894
常 數	0.6897	-0.0894

R<sup>2</sup> : 0.4833  
Adjusted R<sup>2</sup> : 0.4655

\* < 0.05, \*\* < 0.01

작은 回歸等式과의 사이에 있어서 變數의 차이가 有意味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된 公式을 이용하여 F-test를 시도하였다. F-test 결과 두 等式 模型 사이에 있어서 R<sup>2</sup>값은 有意味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sub>6, 350</sub> = 1.40 < 4.36). 그러므로 大邱市內에 소재하는 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出産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分析模型에는 社會·經濟的 要因들을 배제시킨 媒介變數들로 이루어진 回歸等式 模型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媒介變數만을 回歸等式에 포함하는 모형인 表 2의 回歸分析 結果를 가지고 媒介變數들 사이에 있어서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

表 2. 媒介變數들과 出産率에 대한 回歸分析

變 數	B	$\beta$
初婚年齡	-0.0765*** (0.0171)	-0.1811
幼·兒童死亡率	0.2430* (0.0963)	0.1000
結婚期間	0.0017* (0.0008)	0.0997
避妊期間	-0.0016* (0.0007)	-0.1066
人工流産	-0.0898** (0.0293)	-0.1194
年 齡	0.1018*** (0.0085)	0.6215
常 數	0.5415	

R<sup>2</sup> : 0.4730  
Adjusted R<sup>2</sup> : 0.4626

\* < 0.05, \*\* < 0.01, \*\*\* < 0.001

여성들의 出産行爲에 영향을 주는 變因들의 相對인 크기를 標準화된 回歸計數( $\beta$ )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既婚女性의 出産力에 대한 影響力的 크기는 初婚年齡이 -0.1811로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人工流産(-0.1194), 避妊期間(-0.1066), 幼兒 및 兒童死亡率(0.1000), 그리고 結婚期間(0.0997)의 순서이다.

## V. 結 論

본 調査研究에서 밝혀진 大邱市內에 소재하는 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들의 出産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調査 對象者들의 平均 學力은 中學校卒業 程度이며, 그들의 月平均 家族所得은 48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結婚할 때의 平均年齡은 23.6歲였으며 應答者의 약 94%에 해당하는 女性들이 夫婦가 함께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떠한 형태이든 産兒制限을 위한 避妊에 관한 知識을 갖고 있는 應答者는 전체의 92.3%였으며, 避妊을 실시하고 있는 夫婦의 경우

男性이 避妊하는 경우는全體夫婦의 10% 미만이며, 女性이 避妊을 하는 比率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理想的인 子女의 數(아들: 1.2, 딸: 1명)와 실제로 갖고자 하는 子女數(아들: 1.3, 딸: 1.1) 사이에는 아주 미소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選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 選好에 대한 전통적인 韓國人의 思考方式이 많이 변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假設檢證의 결과 다른 先驗 研究에서 밝혀진 바와는 다르게 經濟的, 社會的 變數들은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出產行爲에 有意味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媒介變數에 속하는 初婚年齡, 幼兒 및 兒童死亡率, 結婚期間, 避妊期間, 人工流產등이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出產行爲에 有意味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적어도 大邱市內의 常設市場에서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既婚女性들의 出產行爲에 영향을 주는 決定因子들을 규명하기 위한 回歸等式에는 社會·經濟的 變數들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既婚女性들의 出產行爲에 영향을 주는 媒介變數들의 영향력의 相對的인 크기를 살펴보면 初婚年齡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人工流產, 幼兒 및 兒童死亡率, 避妊期間, 그리고 結婚期間의 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와 같은 變數들이 應答者들의 出產行爲의 約 46%를 설명해 주고 있다.

본 調查研究 對象者들의 경우에 있어서 社會的 經濟的 變數들이 그들의 出產行爲에 有意味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理由로는 첫째, 아마도 市場에서 夫婦가 自營業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의 경우 그들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과, 후 그들의 社會的, 經濟的 與件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의 공통적인 環境要件이 그들의 社會的, 經濟的 特性의 차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는, 1960년대 이후 約 25餘年에 걸쳐서 실시된 社會經濟發展과 家族計劃事業의 영향이 既

婚女性들의 少子女觀 定立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결과, 社會經濟的 要因이 女性들의 出產行爲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弱화된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研究와 관련지워 앞으로 실시될 調查研究에 대하여 몇가지 提案을 해보면, 본 調查結果에 밝혀진 바를 더 一般化 할 수 있도록 규명하기 위하여 다른 職業集團에 종사하는 既婚女性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一般 既婚女性들을 대상으로 研究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意味 있을 것이다. 本 研究에서 조사 편의상 제외된 媒介變數들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잘 다듬어진 設問形態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出產行爲의 原因 糾明을 위한 回歸等式에 도입해 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이다. 時間과 經濟的 與件이 허락한다면 본 調查結果를 바탕으로 母集團의 規模를 확대하여 全國的인 規模의 調查를 실시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人口增加 現象과 관련하여 人口抑制策으로써 出產行爲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媒介變數들에 관한 보다 많은 關心과 研究가 이루어져서 願하지 않는 子女의 出產이 防止될 수 있는 方案이 摸索되어야 하겠으며, 人工流產과 같은 次善의 產兒制限策 보다는 產母의 健康을 保護하면서 計劃하는 子女만을 出產할 수 있도록 避妊에 관한 精確한 知識의 弘報活動이 要求되며, 또한 效果의 이고 安全한 형태의 避妊道具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Bongraarts, John, "The Fertility-Inhibiting Effects of the Intermediate Fertility Variabl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June/July), 1982 : 179-189.
- Cho, Lee-Jay, Effects of Abortion in Fertility Transition in East Asia. pp. 251-263 in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Mexico, Vol.3, Liego, Belgium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1978*



- Cho, Lee-Jay, et al.,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1982
- Cuttright, P. and W.R. Kelly, "The Role of Family Planning Programs on 1958 and 1977 Fertility Declin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7, 1981 : 145-151
- Davis, Kingsley & Judith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56 : 211-235
- Easterlin, R. "Towards a 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p.127-156 in S. Behrman, L. Corsa and R. Freedman(eds),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 A World View, A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9.
- Freedman, R.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 A Reappraisal", *Social Forces*, 58(Sept), 1979 : 1-77.
- Hawthorne Geffrey, *The Sociology of Fertility*, London : Colliar-MacMillan Ltd, 1970.
- Hong, S. et al., *Population Report*, Seoul, Korea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8.
- Kim, Han Gon, Macro-Analysis of Fertility Trends Among Korean Provinces : 1966-1980,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 D. Dissertation, 1985.
- Koo, S.Y. "The Fertility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pp.23-65, Summer Seminar in Population (Korea : A Case Study), Seoul, Korea :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 Kwon, T.H. et al., *The Populatio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75
- Kwon, T.H. Attitides Toward, Nuclear and Sex of Children in Korean Communications, In L.T. Ruzicha, ed., *The Economic and Social Supports for High Fertility*, Dept. of Demography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4.
- Lightbourne, Robert Jr. et al., *The World Fertility Survey : Charting Global Childbearing*, *Population Bulletin*, Vol. 37, No.1, March 1982.
- Park, C.B.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Seoul,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 Stokes, C. Shannan and Yeu-Sheng Hsich, "Female Employment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Taiwan, 1980", Vol. 20, No.3(August), 1983 : 313-331.
- United Nations, *The Determination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 Vol.1. New York, 1973 : 104.
- Waite, Linda J. and Ross M. Stolzenberg, "Interioled Childre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 Insights From Nonrecursive Mode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1(April), 1976 : 235-252.

## Determinants of Fertility Behavior Among Self-Employed Korean Women

Han-Gon Kim  
(Yeungnam University)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chosen from self-employed women in Taegu City, Korea. Data for 415 respondents were collected by face-to-face interview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10 through 23, 1987.

There are three major purposes in this study : first, to describ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Korean women's fertility behavior ; secon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behavior among self-employed women ; third, to explo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ertility determinants among the women.

Regression analyses were introduced to test hypotheses. Nine variables, such as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attainment, mass media, abortion, the period of contraception practice, contraceptive expenses, the number of infant deaths marital period, and age at first marriage were introduced as indicators in th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of fertility and abortion, and the period of contraception practice. On the other han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of fertility and the number of infant deaths, and marital period and age at first marriage are shown in this study.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in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variables and fertility.

From the results of the F test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in  $R^2$  between two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we have found that the regression equation including both socioeconomic variables and intermediate variables is misspecifi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behavior among self-employed Korean women. That is, the F test shows that the regression equation including only intermediate variables as indicators is the best model for this study.

Final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ertility determinants among self-employed women is found as follows : Age at the first marriage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fertility, and the next important factors are abortion, the period of contraception practice, the number of infant deaths, and marital period, in that order.